

□향학의 등불을 밝히는 배움의 전당 상록야학

소외된 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꾸가는 눈물의 현장

가난과 사회적 모순으로 인해 배움의 한을 지닌 많은 사람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의지에서 구성되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야학. 80년대까지만 해도 운동권 대학생의 이념실천공간으로 각광을 받았던 야학의 열기도 시대가 변하면서 사그라들고 있다. 이에 우리 신문사는 야학에서의 일일생활체험을 통해 야학의 위기를 체험하고 학생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편집자>

“교사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필기를 하는 그들의 손은 공부를 본업으로 하는 일반학생들의 고운 손이 아니다.”

“야학의 위기속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의

향학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손을 잡으며 반겨준다.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사제지간의 정은 어느 정규교육기관 못지 않은 것이다.

상록야학은 5백명의 교사와 6천여명의 학생이 거쳐간 우리나라 최대의 야학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튼튼했던 것은 아니다. 초창기에는 책상과 결상이 없어 가마니를 깔고 수업했고, 이곳저곳 전전하는 생활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던 야학이 어느정도 안정된 체계를 갖게 된 것은 여러 독지자들의 도움으로 현재 위치한 회경 1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터이다. 기본적인 교육 기자재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면서 컴퓨터도 들여 놓고 책걸상도 들여 놓았다.

현재 학생수는 1백30여명. 중학교과정반 80명과 고등학교과정반 50명이 있다. 그들을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36명. 이중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9명이나 된다. 이호식(지리4), 강산봉

(영문2), 이민형(법학3), 이상민(생물2), 이정환(화학4), 장민화(생학), 변성연(피아노1), 조현주(국문 졸), 박준덕(경영졸).

세상이 변하면서 대부분의 야학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록은 그래도 여러면에서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야학의 운명이 바람 끝에 돌린 지경에 상록이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교사와 학생들의 향학열기는 여전히 뜨거워요. 하지만 시대가 변한 탓인지 예전처럼 열정을 가진 교사가 드물뿐 아니라 교사모집도 어려움이 많지요. 사회적 무관심도 커지고 있고 죽어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도 적어지고 있어요.” 상록야학의 설립자로서 20여년동안 야학의 살림을 도맡아온 최대천 교무주임(49)의 안타까움이다.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것은 살림살이다. 자체적 운영재원이 부족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독지자나 출신교사, 졸업생들이 보내주는 후원금만으로는 기본 교육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

일일차집, 일일호프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운영비에 보태고 우리학교나 외국어대 등을 빌려



▲40~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이 수업에 임하는 모습은 어느 고등학교 교실의 분위기를 방불케 한다

유료 학예발표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다.

장소사용문제도 만만치 않은 걱정거리다. 임대건물을 이용하는 상록야학은 현재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일반 입주자보다 매우 싸게 사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행여나 임대료가 오른다던지 건물 개보수를 하는 상황이 닥치면 더싸고 좁은 집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다.

교사가 부족한 현실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서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25분부터 10시20분까지 수업이 이뤄지는 야학생들. 교사들은 매주 이틀씩의 담당과목 수업과 한차례의 특별활동시간

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야학의 다른 잡다한 일을 제외하고라도 한주의 삼일은 야학에 붙들어 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학교사란 일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라는 신세대 대학생만을 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야학의 미래가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40, 50대의 아줌마·아저씨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교사들과 학생들의 열의가 정규학교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야

학의 미래가 그다지 어둡지 않은 양상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생활전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고 온 학생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면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학생들은 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수업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교실안은 항상 열기로 후끈거린다.

편지가 와도 읽지 못해 답답해하던 어머니를 보고 배움의 한을 지닌 많은 사람들을 문맹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의지로 설립되었다는 상록야학. 그 이름처럼 ‘온누리 끝까지 맑은 푸르기’를 바란다.

<김용운 기자>

□민중교육운동, 야학의 흐름

구국운동의 성격 강하게 표출

일제하 구국운동으로서의 교육운동.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은 식민지교육에 대한 민족교육 수호와 식민지 지배에서 민족해방을 이루기 위한 구국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구국운동으로서의 일제하 교육운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립학교 운동과 야학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민중야학은 문맹퇴치에 한정되어 있던 초기단계에 극복하고, 민족의 정치, 경제적 현실 인식과 민중에 의한 반제국주의 투쟁을 목적으로하여 자연히 교육내용이나 교수하는 분위기는 민족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

으며, 민족의 문제를 격정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6.25이후 단절된 야학은 1950년대 말 이승만 독재권력 아래서 광범위하게 발생된 몰락 이농민과 교육에서 소외된 도시빈민 자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적, 문화적 소외를 인식한 지식청년, 사회사업가들에 의해 교육기회 제공 및 교화를 목적으로 대도시에서 천막학교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70년대 야학은, 해방 후의 공백기를 거쳐 60년대 재건야학의 시대적 한계를 깨닫고, 야학은 역사적 산물이며, 그러므로 시

대적 상황에 의해 규정된다는 그 존립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변신을 위해 새로운 각성으로 몸부림쳤다. 당시 야학은 그 목적과 교사들의 성격, 운영방식에 따라 김정고시야학(70년대 초반)에서 생활야학(중반), 노동야학(후반), 자취방야학(80년대 초반)으로 발전해 나갔으나 야학연합회 사건(8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사그라들고 말았다.

70년대의 야학이 시대의 필요성에 부합되는 야학의 형태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80년대 야학은 그 형태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야학협의회>로서 개체 야학 단위로 준비와 활동이 완결되는 상황은, 개체야학의 역량상 야학의 질적 발전에 있어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과, 개체야학의 고립, 분산적인 활동은 야학의 방향성 정립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속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이에 교과연구 분과, 교사훈련 분과, 교과연구 등이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연구와 야학으로서의 민중교육 이념과 방향 정립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야학간의 유기적 연결관계를 유지하던 야학협의회는 80년 5.17 이후 외부적인 탄압과 자체내 역량의 부족 등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한국사회가 소비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선 기점으로 평가되는 87년 이후 야학의 외적 환경은 크게 변했다. 야학의 전성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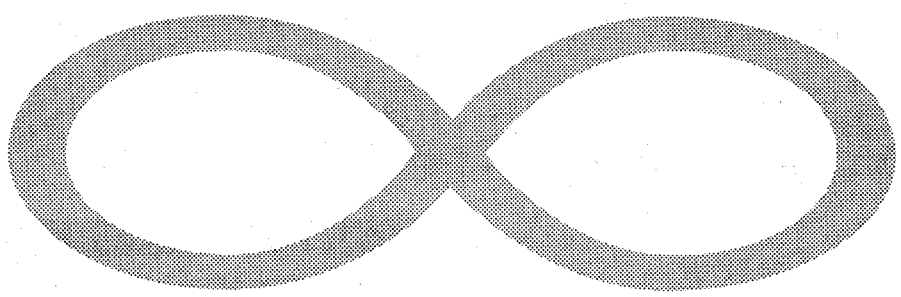
할 80년대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사회적 주목의 대상이었던 노동야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취를 없애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과, 개체야학의 고립, 분산적인 활동은 야학의 방향성 정립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어려움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속속에서 탄생된 것이다. 이에 교과연구 분과, 교사훈련 분과, 교과연구 등이 있었고, 이는 전문적인 연구와 야학으로서의 민중교육 이념과 방향 정립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야학이 봉사활동으로 생각되던, 사회운동이나 공동체적 삶으로 바라보아지던 야학의 존재가치는 여전히 있다.

최근 야학의 위기는 야학 형태의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라고 생각된다. 구국운동의 구심점에 섰던 야학이 이제는 미래를 준비할때가 된 것이다. <최재부>



무한책임 경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장학금 지급 안내

대상 : 98학년도 특차전형 합격자중
수능 상위 5% 이내인 학생
(예·체능계열 제외)

해당인원 : 위 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

지급액수 : 졸업시까지 전액 장학금

기숙사비 50% 면제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신작가주의

디지털 영상제작 전문과정

디지털 영상제작 전문과정 제 2기 연구생 모집

1. 모집인원 : 00명
2. 대 상 : 그래픽 디자인, 멀티미디어 기획자, 애니메이션 연출자, 기타 디지털 영상 제작에 관심있는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제출서류 : 수강지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초본 1통
사진 4매 (반명함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5. 원서교부 및 접수 : 1997년 11월 10일(월)~12월 5일(금)
6. 면접인사 : 1997년 12월 6일(토) 오후 2시
7. 개강일 : 1998년 3월 2일(월)
8. 수강기간 : 6개월 (매주 월-목요일 오후 7:00~9:00)
9. 학 료 : 50,000원(원칙적 포함)
10. 기타사항

본 과정을 수료한 연구생에게 경희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이 발행하는 수료증서 수여
본과 관련 공무원 및 교육계 종사자는 등록금의 50% 감면
교육비전 수료후 졸업작품 발표회 및 참가 작품발표회

KyungHee University Digital Image Laboratory

합용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디지털 영상팀
(Tel: 959-0244, 961-09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